타인과의 관계는 왜 중요할까?

© 대치동 재우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허용합니다.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https://blog.naver.com/leessaem84

한눈에 보는 단원 지도

핵심 문장: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이다.

부	이 부의 질문	꼭 잡을 내용	문답
1부	우리는 왜 타인과 관계를 맺을까?	① 혼자 있어도 연결됨 ② 관계를 맺는 세 이유(돌봄 / 힘을 합침 / 관계의 욕구) ③ 자립과 상호 의존	Q01~Q05
2부	여러 윤리적 관점은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	유교: 도리·오륜 / 불교: 연기·자비 / 아리스토텔레스: 사회적 동물·공동체 / 배려 윤리: 보살핌·응답	Q06~Q11
3부	좋은 관계란 무엇이고, 나와 공동체를 어떻게 바꿀까?	관계의 수와 질을 구별함 → 행복한 삶 · 개인의 성장 · 공동체의 발전	Q12~Q15
4부	좋은 관계를 어떻게 가꿀까?	존중 · 공감 · 배려 · 협력 · 부당한 요구의 거절과 경계	Q16~Q20

1부 우리는 왜 타인과 관계를 맺을까?

Q01 타인은 모르는 사람만 말하나요?

> **답** **타인은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이에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도 나를 기준으로 보면 타인에 포함돼요.

이유·예시

평소에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마라."라는 말을 들으면 낯선 사람의 물건만 떠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의 필통이나 가족의 휴대전화도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친한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물건·감정·의견을 마음대로 다룰 권리가 생기지는 않아요.

헷갈리지 말 것

이 단원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낯선 사람과의 관계만을 뜻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두루 포함해요.

Q02 혼자 방에서 지내는데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나요?

답 지금 눈앞에 다른 사람이 없어도, 나의 생활은 여러 사람의 활동과 이어져 있어요.

이유·예시

혼자 책상 앞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을 만들고 운반한 사람, 집과 전기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식재료를 생산하고 음식을 마련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나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모두 직접 만난 것은 아니어도 그들의 도움과 역할은 내 생활에 닿아 있지요.

연결되는 방식	무슨 뜻인가?	예
직접 연결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거나 함께 활동해요.	가족, 친구, 선생님과의 만남
간접 연결	물건·서비스·시설을 통해 다른 사람의 활동과 이어져요.	책을 만든 사람, 전기를 관리하는 사람, 먹을거리를 기른 사람

혼자 있는 시간에도 간접 연결은 계속돼요. 한 사람과 두 방식으로 함께 연결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가족은 얼굴을 마주하는 사이이면서, 내가 먹는 음식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비유로 보면

책 한 권이 내 책상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이어달리기와 비슷해요. 글을 쓴 사람, 책을 인쇄하고 제본한 사람, 실어 나른 사람이 일을 이어 가며 마지막 주자인 나에게 책을 건네요. 앞선 주자들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그들이 한 일은 내 독서를 뒷받침해요.

헷갈리지 말 것

'혼자 있는 상태'와 '다른 사람의 활동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상태'는 구별해야 해요.

눈앞에 없어도 이어진 사람들



눈앞에 없어도, 내 생활은 여러 사람의 일과 이어져 있다.

그림 1. 점선을 따라 책·불빛·간식이 누구의 일을 거쳐 왔는지 확인해 보자.

Q03 인간은 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가요?

답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돌봄이 필요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이유·예시

갓 태어난 아기는 먹을 것을 마련하거나 자신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어려워요. 누군가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하지요. 자라는 동안에는 말하는 방법, 함께 지킬 약속,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태도도 관계 속에서 배워요.

성장한 뒤에도 모든 일을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픈 사람을 돌보거나 큰 재난에 대응할 때는 여러 사람의 지식과 노력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각자의 능력을 나누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함께 해낼 수 있어요.

헷갈리지 말 것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가치를 낮추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필요한 도움과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요.

Q04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나요?

답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도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는 이어져요. 자립과 상호 의존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립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꾸려 가고 책임지는 것.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상호 의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기대어 살아가는 것. 언제나 같은 양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유·예시

혼자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갈 수 있게 된 학생은 이전보다 자립적으로 이동해요. 그러면서도 운전하는 사람, 차량을 정비하는 사람, 교통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자립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버스에서 길을 묻는 사람에게 정류장을 알려 줄 때는 내가 도움을 주는 쪽이 되기도 해요. 내가 잘하는 일을 맡아 다른 사람을 돕고, 내가 하기 어려운 일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비유로 보면

농구 선수는 스스로 판단하며 자기 드리블과 슛을 해내고, 맡은 역할을 책임져요(자립). 그러면서도 동료에게 패스를 받고, 또 패스를 건네며 경기를 하지요(상호 의존). 드리블을 잘하게 되었다고 패스가 필요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도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는 계속돼요.

헷갈리지 말 것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도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립과 상호 의존은 함께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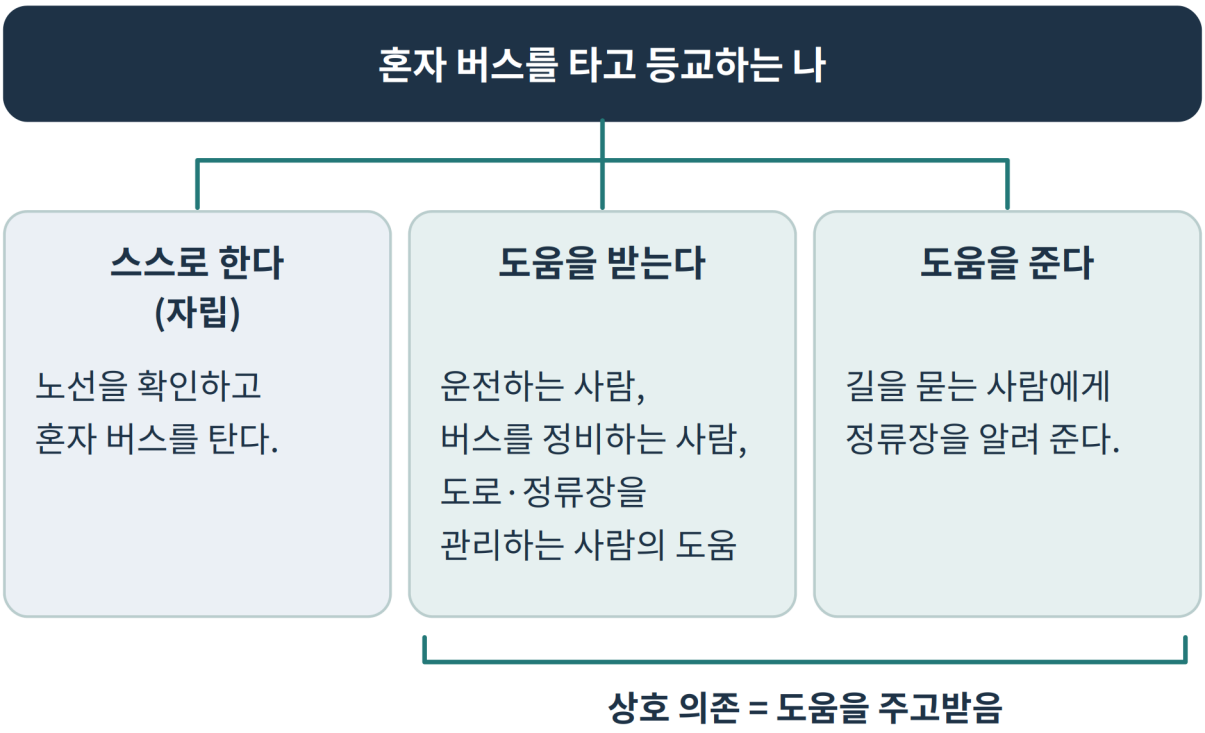


그림 2. 버스를 타는 나의 세 가지 모습을 읽고, 도움을 받는 일과 주는 일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자.

Q05 사랑받고 싶고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도 관계를 맺는 이유인가요?

답 **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집단에 속하고 싶은 마음,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도 인간관계를 맺는 이유예요.**

이유·예시

'욕구'는 어떤 것을 바라거나 필요로 하는 마음이에요. 배고플 때 먹고 싶은 마음처럼 생존에 필요한 욕구 외에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어 해요. 어려울 때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내가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기도 하지요.

반 친구들과 역할을 맡아 행사를 준비하며 "나도 우리 반에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소속감을 얻는 한 사례예요. 이런 관계의 욕구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헷갈리지 말 것

관계를 원하는 정도와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혼자 쉬는 시간을 좋아한다고 해서 관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1부 정리 | 우리가 관계를 맺는 세 가지 이유

이유	무슨 뜻인가?	예
① 돌봄이 필요하다	생명을 지키고 자라는 데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갓 태어난 아기의 생활
② 힘을 합쳐야 한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한다.	아픈 사람 돌보기, 재난 대응
③ 관계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사랑·소속·친구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다.	행사를 준비하며 느끼는 소속감

자립해도 타인과의 연결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립과 상호 의존은 함께 간다(Q04).

2부 여러 윤리적 관점은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

Q06 유교는 왜 인간을 관계 속에서 설명하나요?

답 **유교는 인간이 부모와 자녀, 친구 등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각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유·예시

'도리'는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말해요. 친구가 맡긴 일을 정직하게 처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친구 관계에서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이지요.

유교에서 관계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나와 연결된 사람에게 어떤 책임과 태도가 필요한지도 돌아본다는 뜻이에요. 유교는 대표적인 다섯 관계의 도리를 **오륜**으로 설명했어요.

헷갈리지 말 것

관계 속의 도리를 오늘날 살펴볼 때는 한쪽만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서로** 지켜야 할 도리를 생각해야 해요.

Q07 오륜의 다섯 가지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 **오륜은 유교에서 말한 다섯 가지 인간관계의 도리예요.** 옛 표현에 담긴 관계와 핵심 뜻을 연결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옛 표현	핵심 글자	어떤 관계인가?	전통적 의미
부자유친 (父子有親)	친(親): 친애함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친애함이 있어야 한다.
군신유의 (君臣有義)	의(義): 의리	임금과 신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부부유별 (夫婦有別)	별(別): 구별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역할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
장유유서 (長幼有序)	서(序): 차례	어른과 아이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붕우유신 (朋友有信)	신(信): 믿음	친구와 친구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리'는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말해요.

> **이유·예시**
> '신(信)'을 '믿음'과 연결하면, 친구와 한 약속을 지키는 행동이 왜 붕우유신과 관련되는지 알 수 있어요. '친(親)'은 부모와 자녀가 친애하는 관계와 연결돼요.

> **헷갈리지 말 것**
> 오륜에는 옛 사회의 질서와 역할 구분이 담겨 있어요. 그 뜻을 이해하는 일과, 그 역할 구분을 오늘날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은 구별해야 해요. 성별을 이유로 기회를 제한하거나, 어른의 부당한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돼요.

Q08 불교는 왜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자비를 강조하나요?

> **답** **불교는 존재가 여러 원인과 조건에 의지하여 생겨나고 이어진다는 연기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듯 다른 존재도 소중히 여기는 자비를 강조해요.**

연기(緣起)는 어떤 것도 홀로 생겨나지 않고 여러 원인과 조건에 의지하여 생겨난다는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 **이유·예시**
> 내가 편안히 생활하기까지 여러 사람의 도움과 조건이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만 보기 어려워요. 불교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연결을 깨닫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
> **자비**는 다른 존재를 깊이 사랑하고 그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며 돕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慈)는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 비(悲)는 괴로움을 덜어 주려는 마음이에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활동은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비유로 보면

불교 경전에는 갈대 두 묶음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비유가 나와요. 한 묶음을 치우면 다른 묶음도 쓰러지지요. 다른 조건에 의지하여 성립한다는 연기의 뜻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돼요. 실제로는 둘보다 훨씬 많은 조건이 서로 얽혀 있어요.

헷갈리지 말 것

자비를 '내가 우월하니까 불쌍한 사람에게 베푸는 태도'로 이해하면 안 돼요. 상대를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마음이 바탕이에요.

Q09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인간을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보았나요?

답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존재로 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며 협력할 때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본성적으로 폴리스에서 살아가는 **정치적 동물**로 보았어요. 이 생각은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로 알려져 있어요. **폴리스**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공동체예요. 여기서 '정치적'은 선거 같은 정치 활동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유·예시

공동체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거나 공동의 목적을 이루며 관계를 맺는 집단이에요. 학교에서 서로 약속을 지키고 역할을 맡으면 수업과 활동이 원활해질 수 있어요. 이웃들이 주변 환경을 함께 돌보면 각자의 생활도 더 안전하고 편리해질 수 있지요.

이 관점에서는 인간의 삶을 각자 따로 떼어 놓고 살피기보다,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생활과 협력을 중요하게 보아요.

비유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몸 전체와 손에 빗대었어요. 몸 전체와 연결되지 않은 손은 모양이 손과 같아도 물건을 잡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지요. 사람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사람다운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헷갈리지 말 것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다수가 원하면 개인에게 어떤 요구를 해도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단원에서는 더불어 사는 삶과 협력의 의미에 주목해요.

Q10 배려 윤리는 상대방의 처지를 왜 중요하게 여기나요?

답 **배려 윤리는 사람을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보살핌에 응답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유·예시

친구가 오늘 모둠 활동에 조용히 참여하고 있다고 해 보세요. 이유를 묻지 않고 '성의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몸이 불편한지, 맡은 일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다른 어려움이 있는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요. 사정을 듣고 나면 그 친구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식을 찾기 쉬워지겠지요.

배려 윤리에서 관계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은, 사람을 서로 아무 관련도 없는 존재처럼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와 그 안에서 생기는 필요·책임을 살피는 것이지요.

배려 윤리는 **길리건**, **나딩스** 등이 기존 윤리 논의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의 도덕적 경험과 관계 속 보살핌을 살피며 발전했어요.

비유로 보면

배려는 맞춤옷을 짓는 일과 비슷해요. 누구에게나 같은 크기의 옷을 건네지 않고, 먼저 그 사람의 치수를 재지요. 치수를 짐작으로 정하지 않고 직접 재듯, 상대의 처지를 내 짐작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말과 의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 것

여성의 경험에 주목하며 발전했다고 해서 배려가 특정 성별만의 역할인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배려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각자의 의사와 자립을 함께 존중할 수 있어요.

Q11 네 관점은 모두 같은 말을 하는 건가요?

답 **모두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특히 주목하는 점은 달라요.**

관점	특히 주목하는 점	연결되는 생각
유교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도리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어떤 태도와 책임이 필요한가?
불교	연기의 깨달음과 자비	여러 조건에 의지해 살아감을 깨닫고 다른 존재도 소중히 대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	사회적 동물·공동체 안의 협력	함께 살아가며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가?
배려 윤리	구체적인 처지와 필요한 보살핌	상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이고 응답하는가?

이유·예시

아파서 결석한 친구에게 약속한 수업 필기를 챙겨 준다고 해 보세요. 유교에서는 친구와의 약속과 믿음을 지키는 점, 불교에서는 연결된 존재의 어려움을 돕는 자비,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함께 사는 공동체 안의 협력, 배려 윤리에서는 그 친구의 구체적인 필요에 응답하는 점에 주목해 설명할 수 있어요.

헷갈리지 말 것

실제 행동 하나는 여러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문제에서는 **설명에 쓰인 핵심 개념과 그 이유**를 함께 살펴요. 도리·오륜은 유교, 연기·자비는 불교, 사회적 동물·공동체는 아리스토텔레스, 구체적인 관계·보살핌·응답은 배려 윤리를 이해하는 단서예요. 다만 '협력'처럼 여러 관점에서 쓸 수 있는 말도 있으니 낱말 하나만 보고 기계적으로 정하지는 않아요.

관계를 바라보는 네 관점



그림 3. 핵심어를 비교한 뒤, 같은 행동을 네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3부 좋은 관계란 무엇이고, 나와 공동체를 어떻게 바꿀까?

Q12 친구 수가 많으면 인간관계가 좋은 건가요?

답 **친구 수만으로 관계가 좋은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서로 믿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인지가 중요해요.**

이유·예시

연락처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고민을 이야기할 때마다 무시당한다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 주고 서로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요.

관계의 **질**을 살핀다는 것은 그 관계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것이에요. 내 의견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상대의 의사도 존중하는지,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어요.

비유로 보면

관계의 수는 그릇의 개수, 관계의 질은 그 안에 담긴 것과 비슷해요. 빈 그릇 열 개보다 따뜻한 국이 담긴 그릇 하나가 배를 든든하게 채워 주지요. 관계에서도 몇 명을 아는지보다 서로의 말과 마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해요. 여기서 빈 그릇은 마음을 나누는 일이 부족한 관계에, 국이 담긴 그릇은 서로 마음을 나누는 관계에 빗댄 것이에요.

헷갈리지 말 것

모든 사람과 친해져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친밀한 정도가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며 지낼 수 있어요.

Q13 좋은 관계는 어떻게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나요?

답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느낌과,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경험이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유·예시

발표를 잘 마쳤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친구가 있으면 기쁨이 커질 수 있어요. 실수했을 때도 비웃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움을 혼자 감당한다는 느낌이 줄어들 수 있지요.

자존감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관계 속에서 존중받는 경험은 자존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헷갈리지 말 것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기만으로 나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관계가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관계만 좋으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Q14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 나 자신도 성장하나요?

답 **나와 다른 관점을 접하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며,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어요.**

이유·예시

평소 말수가 적은 친구를 보고 '활동에 관심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준비해 보니 그 친구가 누구보다 꼼꼼하게 자료를 확인한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생각을 바꿀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충분히 살피기 전에 미리 가진 생각을 **선입견**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며 몰랐던 사정을 알게 되면, 선입견을 돌아보고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견을 나누고 역할을 맞추는 과정에서는 기다리기·듣기·책임지기 같은 태도도 배울 수 있어요.

헷갈리지 말 것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판단을 돌아보고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해요.

Q15 개인 사이의 좋은 관계가 공동체 발전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답 **서로 믿고 협력하는 사람들은 공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쉬워요. 이런 경험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바탕이 돼요.**

이유·예시

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이웃들이 안전한 곳에서 관리 사무소에 알리고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한다고 해 보세요. 물이 들어오는 곳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알리는 일도 나누어 맡을 수 있어요. 서로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힘을 합치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학교에서도 빌린 물건을 돌려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맡은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경험이 쌓이면 함께 활동하기가 좋아져요. 개인 사이의 신뢰가 공동체 전체의 협력을 뒷받침하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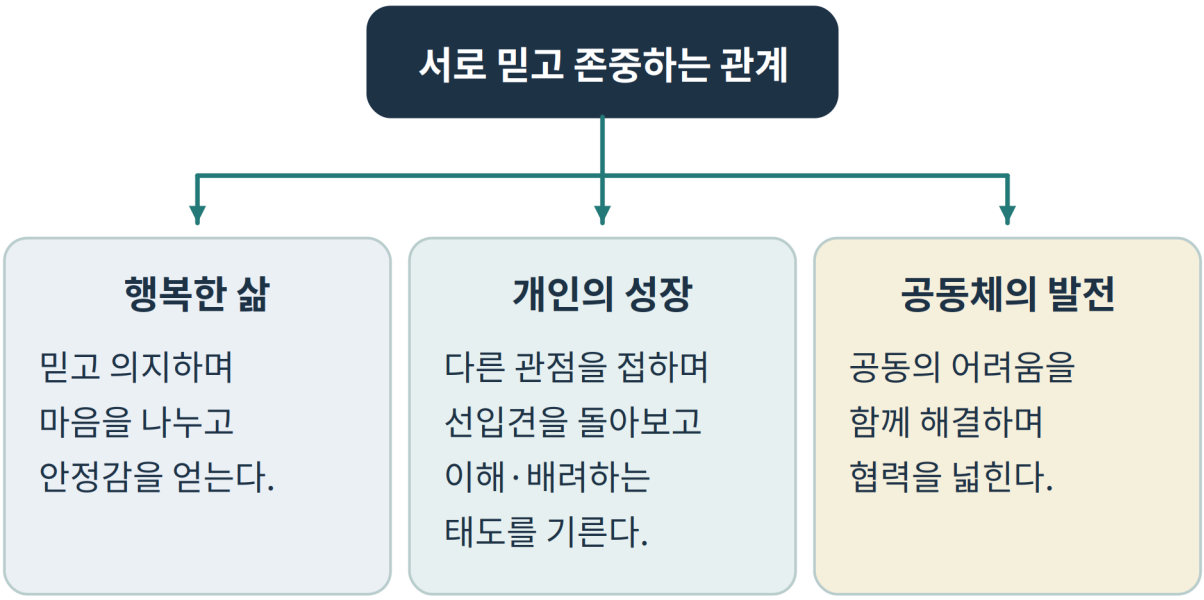
비유로 보면

공동체는 그물과 비슷해요. 그물은 수많은 매듭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매듭들이 튼튼하게 연결될수록 그물 전체가 무게를 잘 버틸 수 있지요. 사람 사이의 믿음과 협력이 매듭이 되어 공동체 전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헷갈리지 말 것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공동체 안의 여러 사람을 존중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필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좋은 관계가 만드는 변화



관계의 수뿐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그림 4. 서로 믿고 존중하는 관계가 나의 행복과 성장,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살펴보자.

4부 좋은 관계를 어떻게 가꿀까?

Q16 상대방을 존중하면 그 사람의 의견에 모두 동의해야 하나요?

답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것과 그 사람의 모든 의견에 찬성하는 것은 달라요. 의견에 반대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어요.**

이유·예시

친구가 모둠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발표 내용을 정하자고 할 때, "그 방식에는 반대해.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듣고 결정하면 좋겠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친구의 인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제안의 문제를 짚고 있어요.

존중은 상대방도 생각과 감정, 의견을 가진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나와 다른 취향이나 생각을 이유로 무시하지 않고, 의견을 주고받을 때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해요.

비유로 보면

축구에서는 공을 빼앗으려 해도 선수를 일부러 걷어차서는 안 되지요. 의견은 공처럼 반대하거나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을 낸 사람 자체를 모욕해서는 안 돼요. 의견에 대한 반대와 사람에 대한 공격을 구별해 보세요.

헷갈리지 말 것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까지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하며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사람에 대한 존중을 지키면서 잘못된 행동에는 반대할 수 있어요.

Q17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똑같이 느낀다는 뜻인가요?

답 공감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것이에요. 반드시 같은 경험을 하거나 똑같은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감은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뜻의 **역지사지(易地思之)**와 통해요.

이유·예시

친구가 발표 중 실수한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고 해 보세요. 나는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일이 계속 떠올라서 다음 발표가 걱정되는구나."라고 말하며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을 때는 "어떤 점이 가장 걱정돼?"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반대로 "그 정도는 별일 아니야."라고 바로 넘기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헷갈리지 말 것

속상한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된다고 인정하는 것은 달라요.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해로운 행동에는 반대할 수 있어요.

Q18 도와주기만 하면 모두 배려인가요?

답 배려하려면 상대방의 처지와 필요, 의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아요.

이유·예시

친구가 모둠 활동에 사용할 색펜을 두 무리로 나누어 두었어요. 나는 책상을 정리해 주려는 마음으로 색펜을 모두 필통에 넣으려고 해요. 하지만 친구는 색펜을 나누어 놓고 순서대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수 있지요.

이때 "정리를 도와줄까? 어떻게 해 두면 좋겠어?"라고 물으면 친구에게 필요한 도움을 알아볼 수 있어요. 친구가 빨강·노랑·초록 색펜을 가리키며 "이 세 개는 먼저 쓸 거라 그대로 둬 줘."라고 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배려예요.

헷갈리지 말 것

배려는 언제나 남의 일을 대신 해 주는 행동이 아니에요. 상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리거나 필요한 부분만 돕는 것도 배려가 될 수 있어요.

먼저 묻고 돕는 배려



그림 5. 두 장면의 말과 행동을 비교하며, 색펜 주인의 계획이 언제 확인되는지 찾아보자.

Q19 협력은 일을 똑같이 나누어 하는 것인가요?

답 **협력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하고 서로 돕는 것이에요. 언제나 같은 일을 같은 양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유·예시

모둠 발표를 준비할 때 자료를 찾는 일을 잘하는 친구, 설명하는 일을 잘하는 친구, 그림을 만드는 일을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각자의 강점과 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역할을 나누고, 결과를 서로 확인하며 조정하면 협력에 도움이 돼요.

일을 나누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부담을 지거나 한 부분이 늦어지면 함께 상황을 확인하고 역할을 다시 맞출 수 있어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의 일을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지요.

비유로 보면

협력은 합창과 비슷해요. 서로 다른 성부가 자기 음을 부르면서 다른 소리와 어우러져 한 곡을 완성하지요. 같은 일을 같은 양으로 해야만 협력인 것은 아니에요. 서로의 소리를 듣듯 역할과 부담을 함께 살피는 과정이 필요해요.

헷갈리지 말 것

강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모든 일을 떠맡기는 것은 협력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역할을 나누는 기준과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해요.

Q20 좋은 관계를 위해 싫은 일이나 부당한 요구도 참아야 하나요?

답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어려움을 표현하고,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이유·예시

친구가 "나는 바쁘니까 네가 전부 해 줘. 친하면 이 정도는 해 줘야지."라고 말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가 바쁘다는 건 알지만, 나도 오늘 할 일이 있어서 전부 하기는 어려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 보자."처럼 상대를 모욕하지 않으면서 나의 부담을 표현할 수 있지요.

경계(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선)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이나 요구의 범위를 말해요. '조심하고 살핀다'는 뜻의 경계와는 다른 말이에요. 좋은 관계는 상대의 의사를 소중히 여기듯 나의 의사도 소중히 여기는 관계예요.

비유로 보면

경계는 대문이 달린 울타리와 비슷해요. 울타리는 이웃을 미워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공간의 범위를 알려 주지요. 대문을 열어 이웃과 어울리면서도, 함부로 들어오려는 사람에게는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계에서도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나의 의사와 한계를 표현할 수 있어요.

헷갈리지 말 것

모든 불편을 피하거나 상대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함께 맡아야 할 책임은 지키되, 한쪽에게만 부담을 떠넘기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는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위협이나 괴롭힘 때문에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4부 정리 | 행동 하나에 여러 태도가 함께 담긴다

모둠 준비를 전부 맡으라는 친구에게 "네가 바쁘다는 건 알지만, 나도 오늘 할 일이 있어서 전부 하기는 어려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 보자."라고 말하는 장면(Q20)을 보자.

친구가 바쁜 사정을 이해하고(**공감**), 친구를 모욕하지 않으며(**존중**), 각자의 부담을 살펴 일을 나누자고 한다(**협력**).

네 태도, 바르게 알기

태도	◯ 이런 것이다	× 이런 것은 아니다
존중	의견이 달라도 상대를 소중한 사람으로 대한다.	상대의 모든 의견에 찬성하기
공감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 한다.	반드시 똑같이 느끼기 / 해로운 행동까지 괜찮다고 하기
배려	필요와 의사를 묻고 필요한 만큼 돕는다.	내 생각대로 대신 해 주기
협력	공동 목표를 위해 강점·부담을 살펴 역할을 조정한다.	무조건 똑같이 나누기 / 한 사람에게 떠넘기기

좋은 관계는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관계이다.
부당한 요구에는 “여기까지”라고 말하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경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림 6. ◯ 칸과 × 칸을 비교하며 각 태도를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보자.

확인 문제

1부 확인

01 **다음 중 이 단원에서 말하는 ‘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름을 모르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만 해당한다.
③ 나 이외의 사람으로, 가족과 친구도 포함된다.
④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사람만 해당한다.
⑤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제외된다.

02 **다음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한 학생이 집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다. 그 책이 학생에게 오기까지 글을 쓰고, 인쇄하고, 운반한 사람들의 활동이 이어졌다.

①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의 활동도 자신의 생활과 연결될 수 있다.
② 혼자 있는 동안에는 인간관계가 완전히 사라진다.
③ 같은 물건을 사용하면 서로 친한 친구가 된다.
④ 도움을 받는 학생은 스스로 하는 일이 전혀 없다.
⑤ 타인과의 관계는 얼굴을 마주할 때만 생긴다.

03 **자립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립한 사람은 어떤 도움도 받지 않는다.
② 도움을 요청하면 자립하려는 태도가 없는 것이다.
③ 상호 의존은 언제나 서로 똑같은 양의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다.
④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늘리면서도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⑤ 자립하려면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멀리해야 한다.

04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 욕구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 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은 마음
> ㄷ. 친구를 사귀고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
> ㄹ.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반드시 지배해야 한다는 마음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부 확인

05 **친구와 한 약속을 정직하게 지키는 행동과 가장 직접 관련되는 오륜의 내용은?**

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애
② 부부 사이의 역할 구별
③ 친구 사이의 믿음
④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
⑤ 어른과 아이 사이의 질서

06 **다음 설명과 관련된 관점과, 그 관점이 강조하는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인간은 다른 존재와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듯 다른 존재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① 유교 — 관계마다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② 불교 — 연기를 깨닫고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③ 불교 — 공동체 안에서 협력할 때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
④ 아리스토텔레스 — 다른 존재를 자신처럼 아끼는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⑤ 배려 윤리 — 오륜에 따라 관계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07 **다음 (가), (나)에 해당하는 관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협력할 때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 (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상대가 처한 상황과 필요한 보살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택지	(가)	(나)
①	불교	유교
②	배려 윤리	아리스토텔레스
③	유교	불교
④	아리스토텔레스	배려 윤리
⑤	아리스토텔레스	유교

3부 확인

08 **좋은 인간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② 만날 때마다 반드시 같은 의견을 말하는가?
③ 서로의 개인적인 사정을 모두 공개하는가?
④ 한 사람이 언제나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가?
⑤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며 믿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

09 **다음 상황에서 좋은 인간관계가 주는 의미로 가장 직접 드러나는 것은?**

> 한 학생은 말수가 적은 모둠원이 활동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함께 과제를 준비하면서 그 모둠원이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겉모습만 보고 내린 자신의 판단을 돌아보았다.

① 선입견을 돌아보며 개인이 성장할 수 있다.
② 관계의 수가 많을수록 모든 판단이 정확해진다.
③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모두 개인에게 맡길 수 있다.
④ 좋은 관계를 맺으면 다른 의견이 사라진다.
⑤ 타인의 능력을 알기 전에 역할을 확정하는 것이 좋다.

10 **좋은 인간관계가 주는 의미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 ㄴ. 나와 다른 관점을 접하며 자신의 선입견을 돌아볼 수 있다.
> ㄷ. 서로 믿고 협력하면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쉬워진다.
> ㄹ. 좋은 관계를 맺으면 모든 어려움이 저절로 사라진다.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부 확인

11 **친구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려는 공감이 가장 직접 드러나는 말은?**

> 친구: “발표하다가 말이 막힌 일이 계속 생각나. 다음 발표도 망칠까 봐 걱정돼.”

① “그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야. 잊어버려.”
② “발표를 잘하는 친구와 비교하면 네가 부족한 게 맞아.”
③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러니까 네 이야기는 그만하자.”
④ “다음엔 대본을 완벽하게 외워 가. 그러면 해결돼.”
⑤ “지난 실수가 떠올라서 다음 발표를 앞두고 걱정이 되는구나.”

12 **다음 상황에서 배려하는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친구가 색펜을 두 무리로 나누어 놓았다. 나는 정리를 도와주려 하지만, 친구가 왜 그렇게 놓았는지는 아직 모른다.

① 친구가 말할 틈을 주지 않고 색펜을 모두 넣는다.
②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친구의 의사를 확인한다.
③ 내 정리 방식이 더 좋으니 친구의 생각을 바꾸도록 강요한다.
④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결과는 살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의 방식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13 **모둠 활동에서 협력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각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같은 양으로 맡긴다.
② 가장 잘하는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나머지는 참여하지 않는다.
③ 역할을 정한 뒤에는 부담이 달라져도 서로 확인하지 않는다.
④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각자의 강점·시간·부담을 고려하여 역할을 조정한다.
⑤ 각자 원하는 일을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따로 진행한다.

OX

14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쓰시오.**

(1)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 )
(2) 공감하려면 상대와 반드시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껴야 한다. ( )
(3) 자주 만나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아도 믿고 의지하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 )

15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쓰시오.**

(1) 배려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끝까지 대신 해 주어야 한다. ( )
(2) 협력할 때는 공동 목표를 이루도록 역할과 부담을 함께 조정할 수 있다. ( )
(3) 친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행동이다. ( )

서술형

16 **다음 주장에 대해 물음에 답하시오.**

> “나는 혼자 준비해서 등교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는 관계없는 생활을 해.”

(1) 혼자 등교하는 생활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역할을 한 가지 쓰시오.

(2) (1)의 도움이나 역할이 있다는 사실과 스스로 등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함께 성립할 수 있는 이유를 쓰시오.

17 **유교·불교·아리스토텔레스·배려 윤리에 대해 물음에 답하시오.**

(1) 네 관점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되는지 쓰시오.

(2) 네 관점 중 서로 다른 두 가지를 고르고, 각각 특히 강조하는 내용을 구별하여 쓰시오.

18 **다음 말을 들었을 때의 대답을 쓰시오.**

> 친구: “모둠 발표에서 그 친구가 내 설명을 계속 끊어서 속상했어. 다음에는 나도 그 친구의 설명을 일부러 방해할 거야.”

친구의 속상한 마음에 공감하는 말과, 친구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일부러 방해하겠다는 생각에는 반대하는 말을 모두 넣으시오.

19 **다음 상황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모둠 발표를 함께 준비하는 친구가 “너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발표 자료는 네가 전부 만들어. 우리는 그동안 다른 거 할게.”라고 말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일은 맡을 수 있지만, 자료 조사와 정리까지 혼자 모두 하기는 어렵다.

(1) 상대를 모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부담을 밝히고, 역할을 함께 조정하자는 말을 쓰시오.

(2) 이 요구를 거절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함께 성립할 수 있는 이유를 쓰시오.

정답과 해설

정답 한눈에

문항	정답	문항	정답
01	③	08	⑤
02	①	09	①
03	④	10	③
04	②	11	⑤
05	③	12	②
06	②	13	④
07	④		
14	(1) O (2) X (3) O	15	(1) X (2) O (3) X
16~19	아래 예시 답과 인정 범위 참고		

01 정답 ③

정답 근거: 타인은 나 이외의 사람을 뜻하므로 가까운 가족과 친구도 포함한다.

오답 이유: ① 이름을 아는지, ② 의견이 같은지, ④ 직접 대화했는지는 타인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다. ⑤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도 나 이외의 사람이므로 타인에 포함된다. **연결: Q01.**

02 정답 ①

정답 근거: 학생의 독서는 직접 만나지 않은 여러 사람의 활동과도 연결되어 있다.

오답 이유: ② 혼자 있는 상태에서도 생활을 뒷받침하는 연결은 이어진다. ③ 같은 물건을 쓴다고 친밀한 친구 관계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④ 도움을 받는 것과 스스로 하는 일이 있는 것은 함께 성립한다. ⑤ 직접 마주하지 않은 사람의 활동과도 연결될 수 있다. **연결: Q02, Q04.**

03 정답 ④

정답 근거: 자립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꾸리고 책임지는 것이며, 상호 의존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오답 이유: 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아야 자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③ 상호 의존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지, 언제나 같은 양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⑤ 자립하기 위해 관계를 모두 끊을 필요는 없다. **연결: Q03~Q04.**

04 **정답 ②**

정답 근거: ㄱ은 사랑, ㄴ은 소속, ㄷ은 친구 관계에 대한 욕구이다. 셋 모두 인간이 관계를 맺는 이유에 해당한다.

오답 이유: ㄹ의 '반드시 타인을 지배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단원에서 설명한 관계의 기본 욕구가 아니다. ㄹ이 포함된 ①·③·④·⑤는 옳지 않다. **연결: Q05.**

---

05 **정답 ③**

정답 근거: 친구 사이의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은 붕우유신이다. 약속을 정직하게 지키는 행동과 직접 연결된다.

오답 이유: ① 부자유친, ② 부부유별, ④ 군신유의, ⑤ 장유유서에 해당한다. 제시된 상황의 관계는 친구와 친구이다. **연결: Q06~Q07.**

---

06 **정답 ②**

정답 근거: 여러 조건에 의지해 살아감을 깨닫는 연기와, 다른 존재도 소중히 여기는 자비를 함께 설명한 불교의 관점이다.

오답 이유: ① 관계의 도리는 유교의 강조점이지만 제시된 설명의 관점과 맞지 않는다. ③ 관점은 불교로 맞지만 짝지은 설명은 이 단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조점으로 다룬 내용이다. ④ 자비에 관한 설명은 불교의 강조점이지만 관점의 이름이 맞지 않는다. ⑤ 오륜은 유교의 내용이므로 관점과 설명의 연결이 모두 맞지 않는다. **연결: Q08, Q11.**

---

07 **정답 ④**

정답 근거: (가)는 공동체 안의 삶과 협력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 (나)는 구체적인 관계에서 필요한 보살핌에 주목하는 배려 윤리이다.

오답 이유: ①·③은 두 관점 모두 맞지 않는다. ②는 두 관점의 위치가 바뀌었다. ⑤는 (가)만 맞고, (나)를 유교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연결: Q09~Q11.**

---

08 **정답 ⑤**

정답 근거: 좋은 관계에서는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믿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오답 이유: ① 관계의 수만으로 질을 판단할 수 없다. ②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③ 개인적인 사정을 전부 공개할 의무는 없다. ④ 한쪽만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상호 존중의 기준이 되기 어렵다. **연결: Q12, Q16, Q20.**

---

09 **정답 ①**

정답 근거: 다른 사람을 알아 가며 선입견을 돌아보았으므로 개인의 성장이 직접 드러난다.

오답 이유: ② 관계의 수와 판단의 정확성이 반드시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③ 사례는 공동체의 일을 개인에게 모두 맡기는 근거가 아니다. ④ 좋은 관계에서도 의견은 다를 수 있다. ⑤ 충분히 알아보기 전에 역할을 확정하면 성급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연결: Q14.**

---

10 **정답 ③**

정답 근거: ㄱ은 행복한 삶, ㄴ은 개인의 성장, ㄷ은 공동체의 발전을 설명한다.

오답 이유: ㄹ은 관계가 좋으면 모든 어려움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좋은 관계는 행복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어려움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ㄹ을 포함한 ①·②·④·⑤는 옳지 않다. **연결: Q13~Q15.**

---

11 **정답 ⑤**

정답 근거: 친구가 왜 걱정하는지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여 말하고 있다.

오답 이유: ①은 감정을 가볍게 넘긴다. ②는 타인과 비교하여 친구를 평가한다. ③은 친구의 이야기를 중단시킨다. ④는 해결 방법을 먼저 제시할 뿐 친구가 지금 느끼는 걱정을 이해하는 말은 아니다. 조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공감이 가장 직접 드러난 말은 ⑤이다. **연결: Q17.**

---

12 **정답 ②**

정답 근거: 상대에게 필요한 도움과 의사를 확인하는 행동이다.

오답 이유: ①·③은 상대의 생각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한다. ④는 도우려는 의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실제 필요와 결과를 살피지 않는다. ⑤는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의사를 무시한다. **연결: Q10, Q18.**

---

13 **정답 ④**

정답 근거: 공동 목표를 위해 서로의 강점·시간·부담을 살피고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협력에 적절하다.

오답 이유: ① 상황과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양만 강제한다. 같은 양으로 나누는 방식 자체가 언제나 잘못인 것은 아니지만, 이를 모든 상황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②는 한 사람에게 부담을 떠넘긴다. ③은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않는다. ⑤는 공동 목표를 위한 연결과 상의가 부족하다. **연결: Q19~Q20.**

---

14 **정답 (1) O (2) X (3) O**

(1) **O:**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의견이나 행동에 반대할 수 있다. **연결: Q16.**
(2) **X:** 같은 경험이나 감정이 없어도 상대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수 있다. **연결: Q17.**
(3) **O:** 관계의 수만으로 질을 판단할 수 없다. **연결: Q12, Q13.**

---

15 정답 (1) X (2) O (3) X

(1) **X:** 배려하려면 상대의 필요와 의사도 살펴야 한다. **연결: Q18.**
(2) **O:** 공동 목표에 맞게 역할과 부담을 조정하는 것도 협력이다. **연결: Q19.**
(3) **X:** 상호 존중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일도 포함된다. **연결: Q20.**

---

16 예시 답과 인정 범위

예시 답

(1)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길과 교통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
(2) 자립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꾸리고 책임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혼자 등교할 수 있는 것(자립)과 길·교통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상호 의존)은 함께 성립한다.

채점 핵심: ① 등교 생활과 실제 연결되는 타인의 역할 한 가지 ② 자립의 뜻이나 상호 의존의 뜻을 근거로, 스스로 등교하는 일과 도움·연결이 함께 성립함을 설명.

인정 범위: 버스를 이용한다는 조건을 덧붙여 운전·정비의 역할을 쓰거나, 길·교통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신발·가방 등을 만든 사람의 역할을 쓴 답도 인정한다. 또한, 제시되지 않은 사례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 '함께 성립한다.'라는 결론만 쓰고 자립이나 상호 의존의 뜻을 근거로 설명하지 않으면 부분 인정한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만 쓰고 (2)의 양립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답은 (2)를 부분 인정한다. **연결: Q02~Q04.**

---

17 예시 답과 인정 범위

예시 답

(1)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이다.
(2) 유교는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강조하고, 배려 윤리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처지와 필요한 보살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강조한다.

채점 핵심: ① 인간을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본다는 공통점 ② 서로 다른 두 관점을 정확히 선택 ③ 각 관점의 강조점을 구별.

인정 범위: 불교의 연기·자비,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체·협력을 포함한 다른 두 관점의 조합도 인정한다. 같은 관점을 이름만 바꾸어 두 번 쓴 답(예: '유교'와 '오륜'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쓴 답)이나, 두 관점을 모두 '친하게 지낸다.'로만 적어 차이를 구별하지 않은 답은 (2)가 충분하지 않다. **연결: Q06~Q11.**

---

18 예시 답과 인정 범위

예시 답

“설명이 계속 끊겨서 속상했겠구나. 그래도 다음 발표를 일부러 방해하는 행동에는 동의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도 자기 생각을 설명할 기회가 소중하니까.”

채점 핵심: ① 친구의 상황과 속상한 감정을 이해하는 말(공감) ② 일부러 방해하는 행동에 반대하는 말 ③ 친구를 비난·모욕하지 않는 말투(존중).

인정 범위: 문장이 달라도 세 요소가 들어 있으면 인정한다. 일부 요소만 드러난 답은 해당 요소만 부분 인정한다. “서로 설명할 기회를 지키면 좋겠어.”처럼 행동에 대한 반대가 분명한 제안도 인정한다. 감정을 이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허용한 답, 친구의 인격을 모욕하는 답은 공감과 존중을 함께 드러낸 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정 해결 절차나 사과 순서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연결: Q16~Q17.**

---

19 예시 답과 인정 범위

예시 답

(1) “그림은 내가 맡을게. 그런데 조사와 정리까지 혼자 하기는 어려워. 조사는 같이 나누어 하고, 내가 그린 그림도 함께 확인해 주면 좋겠어.”
(2) 좋은 관계는 서로의 의사와 부담을 존중하는 관계이고, 협력은 각자의 강점을 살리되 부담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한다는 이유로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떠넘기는 요구는 거절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채점 핵심: ① 자신의 부담이나 가능한 범위를 밝힘 ② 역할을 함께 조정하자는 제안 ③ 상호 존중과 거절·조정의 양립을 설명.

인정 범위: 구체적인 역할이나 시간을 제안한 답, 자신의 한계를 밝히면서 가능한 도움을 제안한 답도 인정한다. 그림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일을 맡아야 한다는 답은 상호 존중을 설명하지 못한다. 반대로 상대를 모욕하거나 공동 과제의 책임을 모두 버리겠다고만 한 답도 충분하지 않다. (2)에서 ‘강점이 다르다고 모든 일을 떠넘기는 것은 협력이 아니다.’라는 근거를 쓴 답도 인정한다. **연결: Q16, Q19~Q20.**
